

BLACK | People of refinement, Goethe says, disliked bright colours, which were for “uncivilized nations and children”, instead wearing black for men. Despite some times being portrayed as devilish, it now signifies the cool self-discipline of the wearer.

0509 | September 5th was designated 1983 in Bolivia as International Indigenous Women’s Day in honour of Aymarán military leader Bartolina Sisa Vargas and of the indispensable role played by generations of indigenous women in the 500-year struggle for decoloni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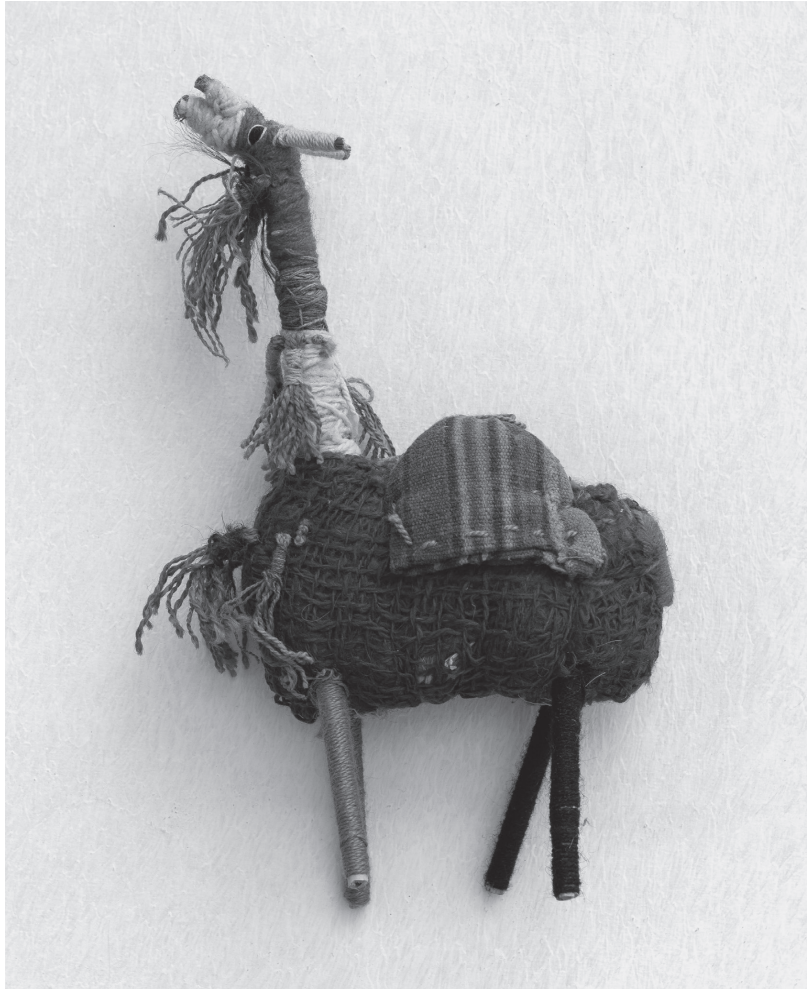
Juan Quispe | What I understand is that culture belongs to the person who lives it. It doesn’t belong to he who stopped living. I see that there are many cultures, or many customs, that have disappeared, but, nevertheless, they say, it is ours but they don’t live it anymore. They’ve changed their ways of celebrating, their clothing, everything has changed. And where they have their past, they only have a museum, a doll dressed up, that is like that. But not in Taquile, it is still alive, it is walking. Well, Taquile in this case would be like a living museum.

BLACK | 괴테가 말하기를, 교양있는 사람들은 “비문명적인 국가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밝은 색상을 싫어하며, 대신 남성들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고 했다. 한 때는 검은 옷을 입는 것이 악마적인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그것은 지금은 냉철한 자기 수양을 나타낸다.

0509 | 1983년 볼리비아에서는 9월 5일을 국제토착여성의날 International Indigenous Women’s Day 로 지정하여 아얄라 Aymarán 군 지도자 바르톨리나 시사 바르가스 Bartolina Sisa Vargas 에게 경의를 표하고, 500년간의 탈식민화

후안 키스페 Juan Quispe | 내가 이해하는 바로 문화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하며, 문화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문화와 관습들이 사라져 가는 것을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라진] 문화나 관습이 자신들의 것이라 말한다. 그들이 축하하는 방식, 옷, 모든 것이 바뀌었다. 유일하게 그들의 과거가 존재하는 곳은 박물관이나 전통 옷을 입은 인형들에서다. 그러나 타킬레 Taquile에서는 문화가 여전히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다. 타킬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라마 피규어



울, 먼, 식물섬유
추정 중후기
약 1000-1450 CE
찬 차이Chang Cay
출처. 이베이, 2013.

오늘날까지 페루와 볼리비아 고원 원주민의 생존은 라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중요했을 뿐 아니라, 토착민들의 믿음의 체계에서 낙타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16세기 스페인사람들은 볼리비아 라마모(毛)가 스페인 양모보다 품질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 십년에 걸쳐 식민지 이전 라마수의 10%만 남기고 몰살시켰다. 안데스의 양치기들은 무리에서 개별 동물들을 묘사할 수 있는 인구 분류법demotic taxonomy을 개발했다. 이러한 계층적으로 무질서한 체계는 매우 유연하여 광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동물들은 수컷 혹은 암컷으로 구분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생식이 가능한 동물은 생식이 불가능한 동물들과는 다른 성별을 가지는 것처럼, 다양한 젠더로 분류된다. 동물의 나이는 햇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방목된 목초의 질과 고도, 자손의 수, 질병, 치아의 상태, 양모의 질과 양, 동물이 젊어질 수 있는 운반량 등 다른 기타 영향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동물 이름의 첫 부분은 라마인지 알파카인지 나타낸다. 그 다음은 색상의 분포 또는 패턴의 종류를 나타내며, 성, 나이, 양모의 품질이 그 다음에 표시된다. 동물이 만약 서로 유사한 경우, 설명이 추가된다. 동물의 양모가 밝은 색상이 우세한 경우, 일반적으로 알카alqa라고 부른다. 알카는 그 다양성에 따라 53개의 용어와 네 개의 어두운 기본 색상을 조합으로 총 212개의 조합이 가능하다. 기본 색상은 19개의 다른 명도를 가지며, 4028개의 가능한 알카 품종이 있다.

성별이 참고로 추가된다면, 동물의 젠더는 언제나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 수는 3배가 되어 12,084개의 품종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에] 나이 요소가 추가되면, 양치기들은 동물을 식별할 수 있는 20,000개가 넘는 상세한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수컷 라마와 알파카는 들판 사이로 그리고 때로는 마을 사이를 오가며 짐을 운반한다. 알파카와 라마 가죽은 매트리스, 베개로, 양모는 의류, 운반용 직물, 담요, 밧줄 및 슬링^{sling}으로 사용된다.

알파카 털은 흰색, 갈색, 회색, 검은 색의 자연스러운 색상이나 그것을 조합한 직물로 만들어지고, 실로 만들어지기 전에 염색되기도 한다. 4년 이상 자란 알파카의 가슴털은 슬링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알파카 고기는 신선하게 조리되거나 소금에 절여서 차르키^{ch'arki}로 보존된다. 알파카의 각 부분은 소비되거나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알파카 피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가 준비된다. 힘줄은 현악기의 줄뿐만 아니라 바느질에도 사용되며 악기를 함께 묶는 데 사용된다. 간은 튀겨서, 페는 야채와 고추와 함께 먹고, 머리는 육수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신들에게 바치는 주요 성분인 동물성 지방으로는 양초를 만든다. 뼈는 직조에 사용되는 빗 모양의 도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배설물은 들판을 비옥하게 하고 햇볕에 쬐면 요리용 연료 역할을 한다.

1 차르키는 육류를 소금에 절여 말린 식품이다. 남아메리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현대 식품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현대에 말린 육류를 지칭하는 '저키'라는 말은 '차르키'에서 유래했다. 차르키라고 불리기도 한다.

푸노^{Puno} 양치기들 사이에서 번개에 맞아 죽은 동물들은 인간을 매장하는 의식과 동일한 의식을 치르고, 8 일 후에 그들의 혼령이 떠날 때 또 다른 의식을 치른다.

2 페루 남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푸노 주의 주도이다.



“저희가”라며, 완벽하진 않아도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이 나무들로 우리가 ‘배’라고 부르는 걸 만들겠습니다. 남은 목재로는 ‘종이’를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죠. 이 ‘종이’ 위에는 (우리가 일단 출항을 하면) 어떻게 ‘쓰는’지 (불탄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보여드리죠. 만약 저희보다 더 잘 하신다면 저희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겠군요.”

근대 그리스에서 자나 깨나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미망인의 그 ‘전통적인’ 드레스는 가부장제 사회 억압아래에서 금욕 중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애플Apple의 맥Mac 제품으로 대표하는 현대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스티브 잡스Steve Jobs도 말년에 공적 옷차림으로 검은색을 선택했다. 초기 사진에서는 그가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후 수도사와 같은 폴로 넥polo-neck 셔츠로 [복장이] 변했다. 그의 이런 모습은 15세기 초반에 안반 에이크Jan van Eyke가 그린 룩카Lucca 지방 상인 지오반니 아르놀피니Giovanni Arnolfini의 계보를 잇는다. 아르놀피니는 상인의 품위와 충성심의 상징인 검은 비버 모피 모자와 까만 모피 드레스, 검은 스타킹과 신발 차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의 전환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공존할 수도 있다. 동시대 세계의 잡스와 더불어 고딕하위문화Gothic Sub.culture의 검은 옷, 화장과 창백한 얼굴이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악마와의 이런 협업은 훨씬 전부터 있어왔고 이 문화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낭만주의 속에서 굴절되었고 뱀파이어 장르 영화와 텔레비전 쇼에서 독특한 재 유행을 만들어냈다. 16세기에 여성이 악마 숭배로 구속되는 사례는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었다. 그 나라의 사형집행인은 주로 붉은색을 입었는데 옷장엔 까만 옷을 넣어 두었다.

3 룩카Lucca
이탈리아 서북부,
플로렌스 지방 서쪽.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검은색은 긍정적인 색이었다. 나일Nile강에서 내려온 그 모든 검은빛 모래 진흙과 대지의 비옥함의 상징이며 죽은 이들이 내세(來世)로 향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색이었다. 그리스 세계에선 내세-저승에 대한 관념이 변하면서 검은색이 부정적인 의미를 띄게 되었다. 태양과 빛과

생동하는 감각 세계의 하늘이 없는 저승Hades³은 따분하고 어둡다. 기독교의 악마 개념도 사티로스satyr⁵의 도상학(圖像學, iconography)에서 비롯했으며 서기 1000년 전후의 악마나 악(惡)에 대한 개념 역시 그 관념에 검은색을 더했다. 하지만 200년 후 검은색은 “도시 귀족들과 시 공무원 혹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옷을 선택하는 색깔로, 품위와 절개를 상징하게 되었다. 14세기 중반에는 염색 기술의 발달이 진행중이었고 염색업자들은 검은 피부의 성 마우리시오Saint Maurice⁶의 인기를 얻었고 염색업자에 대한 세간의 인식도 변했다. “염색업자들은 모리스 성인을 자랑스러워 했고, 회화와 스테인드 글라스, 행진 퍼포먼스로 성인의 이야기를 전했다.” 또한 예수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어린 예수가 티베리아스Tiberias지방 염색소의 견습생이 되어 색깔들을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였다.

3 룩카Lucca 이탈리아 서북부, 플로렌스 지방 서쪽.

4 하데스Hades 그리스신화에서 죽은 자들의 신이다. 여기에선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한다.

5 사티로스 satyr;satyros 그리스신화 속 반인반수 숲의 정령이며 포도주와 황홀경의 신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호색가들이다.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비극들 사이에 진행되는 익살스러운 사티로스극satyros play은 이 이름에서 유래했다.

6 성 마우리시오 Saint Maurice 성 마우리티우스, 성 모리스로도 불린다. 로마 출신 군인이었으며 위상승배를 거부하여 처형당했다. 신성로마제국의 초대 황제 오토1세가 그를 수호성인으로 모셨으며, 독일계 상인 조합인 검은머리길드(The brotherhood of bleackheads; Bruderschaft der Schwarzhäupter)의 수호성인이다.

매염제(媒染劑)에 더 많이 의지하여 발전된 기술은 좀 더 제대로 된 검은색을 만들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기술과 더불어 귀족을 제외한 모두에게 특정 색상 옷을 금지하는 사치 금지령은 1360-1380년대 사이의 상인들과 금융계 남성들이 검은색 옷을 입게 하는데 공헌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모습에 필요한 엄격함을 부여해서, 색공포증chromophobia과 신뢰감을 주는 금속적 모습을 추구하는 개신교인들의 심미적 방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했을 것이다.

검은색은 수 세기 동안 그런 근엄함을 표현하는 색으로서 회색과 경쟁하고 있었다. 문명인은 “비문명적인 국가와 아이들”이 입는 밝은 색상을 싫어하며, 그 대신 남성은 검은색 여성은 하얀색을 입는다고 피테는 말한다. 비판적인 형용사 ‘야한garish’은 밝게 염색된 옷이 음탕한vulgar 것이라는 개념을 영구화 했다. 17세기 브라질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자조적인 브라질 사람들은 그들에게 영국식 옷은 “너무 음울한 옷 같습니다. 이런 우울한 옷은 싫습니다. 여기에는 퀘이커교Quakers 교인들도 없어요. 11월의 영국에나 어울릴 칙울한 색깔들은 원치 않습니다”[고 말했다.]

때로는 이러한 경향이 미신적이라 여겨질 수 있다. 개신교도 자본가 헨리 포드Henry Ford가 그의 고객들에게 “검은색이기만 하다면” 어떤 색의 차든 가질 수 있다고 했듯이, 혹은 영국 판사들이 사형 선고를 내릴 때처럼 참혹한 의식들의 대표자가 자신의 가발 위에 작은 검은색 모자를 얹은 것과 같이, 창조적인 전문 계급과 그 지식인들의 시대는 물론 스티브 잡스가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인 이 시대엔 검은색이 ‘쿨하다cool’는 개념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사제직을 선택하는 색으로 변모하며 생명력을 대어받았다. 이런 진지한 사람들은 예술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분명하고 꾸밈없으며 정갈한 사람이기도 하다.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이 블랙을 더러움과는 거리가 먼 색이라고 여겼듯 검은색은 선명하며 명쾌하다. 최근 발명된, 반타 블랙Vanta Black으로 불리는 가장 검은 검은색은 거의 아무 빛도 반사하지 않는 색인데 스텔스stealth 위성에 사용되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 현재 방위 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있는 혁신들도 이 예를 따르고 있다. 나노 시스템Nany Systems 제작자들은 색채 효과로 저명한 영국 예술가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에게 이 색의 사용 독점권을 제공하는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계약을 맺었다. 검은색의 부상은 수퍼 쿨super.cool하다.

0509

1983년 볼리비아 티후아나쿠 Tihuanacu(Tiwanaku)에서 열린 제2차 미국 조직 및 운동 회의 American Organisations and Movements에서 아이마라 족(族) 군사지도자 바르톨리나 시사 바르가스 Bartolina Sisa Vargas 를 기리며 9월 5일이 공식적으로 국제 토착 여성의 날로 지정되었다.

1780년대 초 페루와 알토 페루(현 볼리비아)의 고지대에서 퀘추아 족과 아이마라 족 일당이 스페인 압제자들과 싸웠다. 바르톨리나 시사는 남편 투팍 카타리와 함께 1781년 라파스를 포위한 4만여 명 이상의 군대를 이끌고 토착민 봉기를 이끌었다. 시사는 184일 동안 유지되었던 포위 공격의 지휘관이었으며, 11개월 후 반란군이 진압되며 처형당했다. 초기부터 바르톨리나는 혁명의회에서 여성을 고려하게 하는 등 이 운동에 역동적인 공헌을 하였다. 민중 봉기는 오늘날 사회 운동의 목표, 토착권의 회복, 안데스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들에 대한 공평한 재분배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바르톨리나 시사는 말의 꼬리에 묶여 목에는 밧줄이 감기고, 벌거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감옥에서 나온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반란군 지휘관인 그녀의 시누이 그레고리아 아파자 Gregoria Apaza는 당나귀에 얹혀 나온다. 그들 각자의 오른손에는 셉터 scepter 같은 지팡이 십자가를 들고 있으며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다. 그들 앞에서 죄수들은 나뭇가지로 땅을 깨끗이 쓸고 있다. 바르톨리나와 그레고리아는 교수형이 행해지기 전 까지 볼리비아 라파스의 주요 광장을 몇 바퀴씩 돌면서 그들을 인도 여왕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돌과 비웃음 속에 고통 받는다. 선고문에는 그들의 머리와 손이 지역의 도시들에서 [본보기로] 전시될 것이라고 쓰여 있다.

바르톨리나의 숙명 fate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9월 5일은 그녀를 기억하기 위한 날일 뿐만 아니라 500년간의 탈식민화, 토지개혁, 사회정의 투쟁의 역사에서 이름이 지워진 토착 여성들이 행했던 중요한 indispensable 역할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다. 오늘날 볼리비아 농민 여성 바르톨리나 시사 전국 연맹 Bartolina Sisa National Federation of Bolivian Peasant Women(FNMCB-BS 또는 바르톨리나스 Bartolinas)은 힘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2010년 바르톨리나 지도자 닐다 코파 leader Nilda Copa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되었으며, 플뤼니얼 입법회 Plurinational Legislative Assembly에는 여성대표자가 전체의 30%에 이르렀다. 더불어 전체 볼리비아 의회 의원 중 43%가 여성이다. 또한 현 정치 행정부는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예를 들어]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정부는 농촌 여성들에게 10,300개의 부동산 소유권을 분배했다.

온두라스는 상황이 매우 달랐다. 서방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았던 2009년 쿠데타가 일어난 이래, 자신들의 토지를 보호하려 했던 마야인 12명과 31명의 노동조합원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된 바 있다. 이 쿠데타에는 섬유와 의류 분야에서 일하는 11만 명의 여성들이 참여했으며, 당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미국의 '자유 무역' 이자에 대항해 아메리카 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Bolivarian Alternative for America에 서명했던 마누엘 켈라야Manuel Zelaya 정부에 맞선 쿠데타였다. 바르톨리나와는 달리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토착민 출신의 환경주의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사실이 2016년 그녀의 암살이나 2017년 딸의 목숨을 노리는 뻔뻔한 시도를 막지는 못했다. 정권의 테러 전략이나 노동자와 협상하기보다는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섬유 기업들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2015년과 2017년 캐나다 소유의 길단 Gildan 공장에서 9,000명의 여성들이 2년간의 투쟁 끝에 노조 결성권을 따냈다.

10 후안 끼스페 Juan Quispe 페루에 있는 타킬라 섬의 티티카카 호수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농부이자 모자뜨는 일을 하는 스토리텔러이다. a resident of the island of Taquile, Lake Titicaca, Peru. He is a storyteller who works as a farmer and cap-knitter.

후안 끼스페 Juan Quispe 10



위. 후안은 허리띠에 엮인 마리아의 머리카락을 보여주었다. 아래. 마리아와 후안 끼스페 정원 가꾸기

12 타킬레는 티티카카 호수의 페루쪽에 위치한 섬으로 푸노시에서 45km 떨어져 있습니다. 섬에는 약 2,200 명이 살고 있는데, 크기는 5.5 x 1.6 킬로미터이고 면적은 5.72km²입니다.

“내 이름은 후안 끼스페Juan Quispe이다. 나는 티티카카 호수Lake Titicaca 11의 타킬레Taquile 12섬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입고 있는지, 특히 여자들이 엮어 만든 파하faja(넓은 벨트)와 남자들이 짠 추요ch'ullu(울모자)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러나 먼저 너그러움(generosity)의 표시로 해석되는 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예를 들어] 내가 비록 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천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네가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은 항상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것이다. 내 말은,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영혼이 피폐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기쁨 역시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 천은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 끝자락에 있다. 파하와 추요에 사용되는 상징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11 티티카카 호는 페루와 볼리비아 사이에 있는 호수이다. 운송로로 이용 가능한 호수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이다. 또한 남아메리카에서 수량이 가장 큰 호수이기도 하다.

사용했던 것과 같다. 예를 들어 현대 달력이 도입되었지만, 달력 벨트(chumpi calendario)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새, 꽃, 농작물의 짜임새 패턴을 통해 시간을 본다. 우리는 집을 짓는 시기와 낚시철을 읽는다. 그리고 [그 벨트에는] 망자의 날, 새로운 동물의 탄생, 새해와 같은 몇몇 축제들이 적혀있다. 우리의 조부모님들도 같은 우주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직물은 발전되었고, [지금은] 무지개 색을 꽤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께 많은 색을 만들 수 있었는데도, 왜 조상들은 무지개 색을 사용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조상들은 무지개를 경외시켰고, 무지개 색은 사람을 태우거나 장(腸)을 꺼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다.

하지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변하고 있고, 우리는 무지개 색을 사용해서 [사람을] 불에 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마도 우리의 조부모님들은 그런 식으로 무지개를 경외시키고 싶으셨을 것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6월이나 5월에 무지개가 지면, 비가 곧 그칠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해가 질 때 무지개가 있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해가 뜰 때 무지개가 있다면 비가 올 것이다. 이것이 [일기]예보다. 아마도 우리 조부모님의 태도는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색상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직물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내 여동생 중 한 명이 파하에 우주 왕복선 이미지를 엮었던 적이 있다. 나는 동생에게 왜 [우주선을] 엮었는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고, 여동생은 “모르겠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해에 챌린저 우주왕복선¹³이 이륙 직후 공중에서 폭발했을 때, 그 소식이 텔레비전 뉴스로 전해졌고, 여동생은 그 비극적 장면을 모두 보았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자신이 느꼈던 것을 파하로 엮어냈던 것 같다.

13 챌린저 우주왕복선은 두 번째로 임무에 투입된 미국항공우주국의 우주왕복선이다. 이름은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를 최초로 측정한 영국 탐험선 HMS 챌린저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어쨌든, 한 사람의 인생, 과거와 미래, 감정, 계획 그리고 경험은 파하에 기호를 통해 기록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해하는 문화는 그 시대의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며, 더 이상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많은 문화와 관습들이 사라져 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그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라고 말한다. 그들이 축하하는 방식, 그들의 옷,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들의 과거가 존재하는 곳은 박물관이나 전통 옷으로 꾸며진 인형들이다. 하지만, 타킬레에서는 아니다. 문화는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 타킬레는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은 곳이다.

파하 역시 살아있다, 그것은 몸과 같다. 심장이 있고, [그 심장은] 마치 팔처럼 파하를 뒤에서 안전하게 지켜준다. There is a heart, and also that which supports the faja, that which secures it at the back and is like the arms. 판매용이 아닌 흰색 줄무늬의 언더벨트가 있는 파하는 힘겨운 농사일을 하는 동안 그것을 찬 사람의 등을 받쳐준다. The belt, which is not for sale, with a white striped underbelt also supports the wearer's back during heavy agricultural labour. 그런가 하면 [파하는] 땅은 머리카락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살아있다.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뜨개질을 하거나 직물을 짜는 사람은 자신의 직물을 자를 수 없고, 그것은

최악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쉽게 직물을 자를 수 없다. 이제 추요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어렸을 때 뜨개질 하는 할아버지를 지켜보곤 했는데, 나는 거기에 정말 빠져들었다. [할아버지가 짠 추요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나도 추요를 짜고 싶었다. 내가 놀고 있을 때, 할아버지는 어느 틈엔가 실[과 같은] 모든 뜨개질 재료를 꺼내 놓고서 '뜨개질을 해보련?'하고 말하셨고, 나는 '네. 뜨개질을 하고 싶어요'라고 대답했다. 음, 할아버지가 나에게 막 실을 주려던 참이었는데, 할머니는 안된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나한테 나가서 양떼를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당시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뜨개질인데 왜 양떼를 먼저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나는 어쨌든 밭으로 나가 양들과 함께 뛰어 놀았다. 그것 역시 매우 재미있었다. 양들과 같이 호수로 내려가서 목초지를 찾아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웠지만, 그래도 뜨개질을 하고 싶었다. 어쨌든 몇 년이 지나서, 아니 몇 달 혹은 몇 년이 흘러 처음으로 어린 양이 태어나는 것과 양털이 자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양털을 깎을 준비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양털을 깎으며, '그래, 너도 이제 너만의 실을 만들어야 한단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나는 아뿌스칸^{apuscan}, 물레가락을 꺼어 보았다. 그것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내 신념이나 할아버지의 믿음이 작용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실을 만들기 시작했다. It started to move, and I began to make my threads in such a way that maybe my faith or the belief of my grandfather worked. 내 말은, 그것은 나를 치료해준 약이었다. [그만큼] 나는 정말 [나의] 실을 만들고 싶었다. [마침내] 나는 나의 실을 만들었다. 내가 막 실만들기를 마쳤을 때, 할아버지는 바늘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 이제 뜨개질을 해보자'라고 하셨다. 하얀색으로만, 양처럼 흰색으로만, 그때 나는 작은 새들과 상징들을 넣어가며 뜨개질을 하고 싶었지만, 먼저 완전히 하얀 모자를 완성해야 했다. 지루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뜨개질하는 것은 인내심, 즉 양털에서부터 모자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다. 나는 그 일을 해내었다, 무지의 흰 추요를 완성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형편없었다. 모양도 별로였다. 내가 추요를 완성했을 때, 할아버지는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실을 꺼내셨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실을 바로 앞에 꺼내놓으셨다. [그리고는] '이제 너만의 추요를 만들 수 있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시작하였다. 우선 나는 그 색깔 조합 좋아하지 않았다. 나만의 조합을 만들고 싶었다. 내가 추요를 완성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나이든 형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놀릴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것은 창피한 일이었다. 나는 [나의 추요에 사용한] 색을 좋아했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사용한 색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노란색과 초록색 혹은 [노란색과] 파란색을 조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색깔은 언제나 이곳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색깔이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색 코드를 어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색깔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만약 내가 파란색 대신 검은색을 사용했다면, 그리고 빨간색 대신 더 어두운 색을 사용했다면, 사람들은 '왜 추요가 이런 색인지, 어두운 색인지 너는 아니?'라고 물어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어두운 색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노란색은 너무 많이 반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색을 보고] 당신은 홀아비인가요? 어디에서 왔나요? 아마 다른 행성에서 온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요는



남서 해안 프랑스는 헥타르당 한 마리의 양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황폐한 습지였다. 양치기들은 그들의 양들이 먹을 더 좋은 풀을 찾으러 매일 긴 거리를 이동하고, 발을 건조하게 하기 위해 죽마를 사용했다. 그들은 쉬고 싶을 때면 막대기를 사용하여 삼각대를 만들었다. 3미터 상공에 자리잡고 털실로 옷을 짜면서 양떼들을 찾기 위해 지평선을 살폈다. 멀리서 양치기들을 본 사람들은 그들을 작은 뾰족탑과 거대한 거미에 비유했다.

2000년 당시 인구가 1900명으로 추산된 타킬레 섬은 페루의 티티카카 호수에 있는 작은 섬으로, 해발 13,000피트(3,815m)에 있는 안데스 알티플라노(고원)의 안디안스 알티카카(고원)에 있는 섬이다. 케추아어Quechua를 사용하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드라마틱한 색감의 정교한 직물과 지역사회가 통제하는 관광의 모델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2005년 유네스코는 타킬레와 그 직물 예술을 구전 유산과 무형 유산의 걸작으로 인정하였다.

색상 코드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적인 것이기도 하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두 똑같이 보이지만, 타킬레 사람들은Taquileño는 직물을 보면 바로 알아차린다. 만약 당신이 나의 추요를 쓰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며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당신에게 후안의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뜨개질이나 직물로 서로를 알아 본다. 육안으로는 모두 똑같아 보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색이다. 어떤 가정에서는, 함께 모여 살기로 할 때 커플이 직물을 짜는 기술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때로 소녀의 아버지가 추요가 만들어진 상태를 확인하기도 한다. 추요는 튼튼해야 한다. [그것도] 아주 튼튼해야 하고, 촘촘히 짜여져야 한다. [그래서] 또 어떤 가정에서는 [추요에] 물을 붓는 경우도 있다. 거의 온 가족이 그 젊은 남자가 추요를 잘 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방수가 되게 짠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물이 여전히 추요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 안에서 역할을 시작하는 하나의 방식이다.”